

강진군, 2026년 첫 논콩 식재 완료...풍년농사 기원

강진군이 최근 2026년 첫 논콩 식재를 완료하고 한 해 풍년농사를 기원했다.

이번 첫 식재는 착한영농조합법인(대표 마경우)이 콩 품종 '선풍'을 10ha 규모로 식재 완료했다. 강진군은 이번 식재를 시작으로 논을 활용한 콩 재배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작부체계 다변화와 식량작물 생산 안정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착한영농조합법인의 콩 재배면적은 지난해 128ha에서 올해 135ha로 늘어 전년 대비 7ha 확대됐다. 강진군은 재배면적 증가가 현장 참여 확대와 생산 기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육 단계별 기술지원과 현장 점검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강진군은 과중 이후 초기 활착과 생육 관리가 중요한 만큼 배수 관리, 잡초 방제, 병해충 예방 등 핵심 관리 사항을 중심으로 농가 지도와 상담을 강화하고, 기상 여건 변화에

따른 재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 할 예정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올해 첫 논콩 식재가 계획대로 마무리된 만큼, 안정적인 생육과 수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재배면적 확대 흐름에 맞춰 논콩 재배가 지역 농업의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논콩 재배 기반을 꾸준히 확충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수확기까지 생육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유통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전운재 기자



강진군이 '선풍' 식재를 완료했다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무안, 군고구마 활용 프리미엄 디저트 '달수빵' 출시

무안군 융복합센터에서 생산한 군고구마 페이스트를 활용한 프리미엄 디저트 '무안 달수빵'이 공식 출시돼 6일부터 온·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한다. '무안 달수빵'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프리미엄 간식 상품으로, 지역 농가와 청년 창업자가 협력해 개발한 상생형 가공제품이다. 냉동·냉장 유통 없이 당일 생산·배송하는 100% 수제 방식으로 제조되며, 고구마 본연의 단맛과 향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수입산 페이스트 대신 무안산 고구마 페이스트만 사용하고 방부제를 넣지 않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디저트로 출시되며 무안을 리시안카페와 목포세무서 앞 달수카페, 온라인 네이버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무안 달수빵은 지역 농산물 브랜드화와 청년 창업 결합 상품"이라며 "가공식품 개발로 농가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용운 기자

목포시, 전국종별·아시아투척대회 성료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투척 선수권대회 사진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55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와 2026 아시아투척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 20여 개국 선수단이 참가해 차세대 육상 유망주를 발굴하는 무대가 됐으며, 연일 신기록이 경신되며 다가오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둔 한국 육상의 밝은 전망을 보여줬다.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는 남

자 일반부 100m 예선에서 나마디 조엘진(예천군청)이 10.19초로 대회 신기록을 수립했으며, 남자 중등부 창던지기 김정윤(울산 서생중) 선수는 69m62로 한국기록을 경신하는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였다. 남자 고등부 원반던지기에서는 손창현(구미 금오고) 선수가 53m89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목포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외 육상 저변 확대와 지역 스포츠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박성태 기자

함평군 대동면, 어버이날 맞아 '오월애(愛) 만나효(孝)' 사업 추진

전남 함평군 대동면이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사업인 '오월애(愛) 만나효(孝)' 사업을 추진하고 정서적 교감을 나눴다.

함평군은 "이날 대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특화사업인 '오월애(愛) 만나효(孝)' 사업을 추진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의 돌

봄이 부족한 독거 어르신에게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하고, 정서적 교감을 나눠 외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께 카네이션과 과일바구니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살피며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도 함께 진행했다. 카네이션을 전달받은 한 어

르신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주시어 정말 고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재갑 대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독거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용운 기자

영암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운영

영암군이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재택의료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군은 5월부터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보다 촘촘한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에 나선다.

영암군보건소는 지난해부터 전담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 54명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영암군의 재택의료 운영 사례는 우수사례로 주목받아 경남 고성군 등 여러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졌으며, 전라남도도 현장을 찾아 운영성과를 확인하는 등 관심을 보여왔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보건소 전담형 재택의료센터를 독천한국의원과 해당한의원이 참여하는 협업형 재택의료센터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영암한국병원도 전담형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준비하고 있어 서비스 기반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기영 기자

신안, 퍼플섬서 전국 최대 프렌치 라벤더 축제 개최

신안군의 대표 관광지 안좌면 퍼플섬에서 오는 5월, 전국 최대 규모의 '프렌치 라벤더 축제'가 열린다. 퍼플섬의 대표 축제인 '라벤더 축제'는 2023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4회째를 맞는다.

2025년 기준 누적 방문객 2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외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퍼플섬은 이번 축제를 위해 라벤더 공원 관람로를 정비해 꽃밭 속에서 자유롭게 사진 촬영이 가능한 포토존을 대폭 확대했다. 축제는 5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개막식에서는 전남시니어모텔협회가 라벤더를 배경으로 패션쇼를 선보여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 특색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또한 라벤더를 활용한 다양한 포토존과 즐길 거리도 마련된다. /박성태 기자

가고싶은 멜로우시티 장성호 수변길

영암군출렁다리

수변 데크길(왼쪽)

황금빛출렁다리

수변 데크길(오른쪽)

멜로우 시티 장성군